

說明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고 文獻等에도 별다른 言及이 없는 듯하다 (輿地勝覽에는記載되지 않음) 단지 崔南柱氏가 同寺를 調査한 후 大雄殿을 李朝中期의 建物이라고 判定하였다 하나 그 根據를 알 길이 없다(本誌三卷十一號 卍一六)。

同寺 石垣 綠草地帶에 石柱 四本(崔南柱氏幢竿說은 誤謬인)이 있어 注目되는데 이는 그 彫刻된 手法이라던지 樣式으로 보아 一柱門(例 梵魚寺一柱門)이었던 듯 하나(同行人的 衆論) 그것은 따로 重要な 것이라 생각된다.

## 任實의 石佛 二軀

鄭 永 鎬

全南任實郡內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石佛二軀가 있어 지난 六月初에 現地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調査에는 梨大博物館의 秦弘燮教授를 비롯 金和英、柳英子諸氏와 同行하여 많은 助言을 받았다. 甚은 感謝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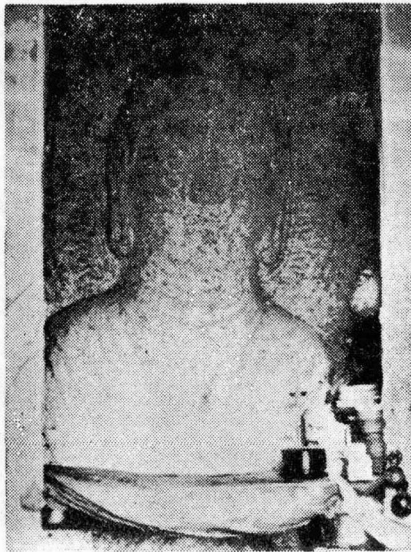
### 一、二道里 石佛坐像

任實邑에서 徒步로 約 一·五km 「동막골」貯水池 옆 山麓에 외판草 家집(金氏宅)이 한 채 있고 여기서 約 三十m 떨어진 山 밑基地 위에 石佛一座가 있는데 原位置는 아니다. 坐像과 光背가 一石으로 되어 있으며 全面에 磨損이 甚하여 各部의 彫刻이 뚜렷치 못하고 頭部에 더욱 破損이 甚하여 相好等 알 수가 없다. 法衣는 通肩으로 左腕을 걸쳤으며 胸前에는 衣帶가 보인다. 귀는 긴편이고 右便이 完全하며 右手는 들고 左手는 무릎위에 놓은 듯 하다. 左足은 右膝上에 놓인 것이 뚜렷한데 右足은 磨損으로 分明치 않다 光背는 圓形으로 上部가 破損되었 으며 周緣에 一條線과 火焰의 痕跡이 보인다. 佛像下部가 若干 埋沒되었고 蓮華座等은 없는 것 같다. 全面에 破損이 많으나 兩腕의 曲線

은 注目되는 手法이다 年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實測値는(cm)……: 全高 一三八·五(像高一四·五 肩幅五〇 膝幅七二 頭高三二 胸幅三二·五 光背幅七三·五)이다.

### 二、觀月里 石佛立像

屯南面契樹里에서 下車하여 河川을 건너 觀月里洞內로 들어가면 뒷 山기슭에 單間一屋이 보이는데 立佛은 이 안에 奉安되어 있다. 原位置인 바 現在 이 곳에는 老婆가 이 집을 法堂삼아 佛像을 禮拜하고 있는데 이곳 朴陽植氏(老婆의 子)말에 依하면 露天에 放置되었던 것을 約五年前 現在의 建物을 지어 兩露를 막고 있다는 바 때로는 信徒들의 佛供도 있다고 한다. 狹少한 房에서 또는 여러가지 器物的 障碍와 特別 老婆의 反對로 調査에 隘路가 많았다. 腰部以下는 埋沒로 調査가 不可能하며 光背上部는 建物로 因하여 困難하였다. 光背와 立像이 一石인 巨像인데 露出된 部分은 完全한 편이다.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으며 兩耳가 壯重하나 긴편은 아니다 三道가 있으며 白毫는 없고 鼻部와 右便耳朵에 若干의 磨損外에는 各部가 整齊되어 있다. 通肩의 法衣는 胸前에서 다시 放射形으로서 밑으로 흘렀고 兩手는 臍前에서 뚫은 듯 한데 法衣안 內이어서 衣文만이 보인다. 光背는 舟形擧身光으로 周緣에는 火焰과 雲文 그 안쪽으로 는 花文等이 線刻 되었다. 頭部周緣 에는 一條線이 있고 그 周邊에 蓮瓣을 들렸으며 그 밖에 二條線이 陽刻되었는데 어깨에서 다시 二條線이 내려져 身光이



區分되었다. 頂上에는 蓮華座위에 化佛一軀가 線刻되었는바 그手法이 注目되었다 全體的으로 純白色인데 이것은 이 곳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恒時(恒時) 닦고 있기 때문이다. 頭像이나 光背의 手法으로 보아 高麗中期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cm)……現高(頭部까지) 約 二〇〇 頭高八一 肩幅耳長四五 胸幅一〇・六一 光背幅 一五七이다.

以上 兩軀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 調査資料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기에 附記하여 둔다.

- 一、二道里石佛坐像……寺址內ニ石佛アリ 全高 三尺八寸兩膝頭間二尺五寸ノ座像ナリ 光背ヲ有ス、其ノ高サ四尺五寸ナリ。
- 二、觀月里石佛立像……石佛ハ高サ八尺五寸ノ半身像ナリ 圓錐形ノ光背アリ 其ノ高サ一丈三尺ナリ 稍完全ナリ。

### 李朝白磁胎壺

姜 敬 淑

梨大博物館에 「成化十七年」銘 胎誌石이 달린 白磁胎壺가 收藏되어 있는바 여기에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이 胎誌石은 黑色粘板岩으로서 두께 三・一一三・九cm 크기 二八・二cm x 二〇・六cm이다. 表面에 가로 一〇線 세로 一七線으로 가늘고 얇은 井間區劃을 만들고 그 안에 全三五字의 胎誌銘을 中央에 三行으로 刻字하고 있는데 그全文은 다음과 같다.

皇明成化十七年辛丑三月十一日生

王女阿只氏胎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

日丁時藏

以上の 銘文에 依하면 成化十七年은 西紀 一四八一年 即 成宗 十二年에 該當되며 同年 三月에 낳은 王女阿只氏의 胎를 七月에 二重白磁胎壺

에 넣어서 묻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미 紹介된 바 있는 貞壽阿只氏胎誌에는 「王女貞壽阿只氏胎」라 했고(註 또는 國立博物館 所藏인 白磁胎壺의 胎誌에는 「王女敦壽阿只氏胎」라고 했는데 이 胎誌에는 王女の 이름이 없이 그냥 「王女阿只氏」라고만 있어 누구의 胎인지 밝혀 있지 아니하다.

外壺는 全高 四七・四cm、身高 三六・四cm、口徑 一三・七cm、甬徑 一七cm、蓋高 一三・八cm、蓋徑 二五・九cm로서 内개의 고리가 달린 肩部에 口緣은 살짝 外反되어 끝이 안으로 말려들어 갔으며 넓고 맑은 乳白色의 釉가 골고루 쇄워지고 光澤도 매우 良好한 편이다. 甬의 形式은 扁平하고 넓적하고 뚜껑은 内개의 구멍이 뚫린 蓮蓬오리形의 손잡이 꼭지와 이 꼭지 주위로 磁土의 흔적이 있어 이의 燒成方法을 말해주고 있다.

內壺는 全高 二八・四cm、身高 二四cm、口徑 九・九cm、甬徑 一〇・二cm、蓋高 六・七cm、蓋徑 一一・五cm로 역시 肩部에 고리가 달렸고 또 初期形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口緣을 가지고 있다. 當時 上質白磁의 典型的인 釉色과 光澤은 이들 胎壺가 宮中用 上品이었음을 말해주고

